

2004년 6월 현재 총 감염인 2,842명

# 하루 에이즈 감염 1.7명꼴로 증가세 급증

국내 신규 감염인의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총 302명으로 하루 평균 1.7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4년 6월말 현재 국내 누적감염인수는 총 2,842명으로, 이중 565명은 이미 사망하여 2,277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 상반기 신규감염인은 작년 상반기 251명에 비해 20.3%나 증가한 수치로 이런 증가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해 신규 감염인이 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나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홍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02명의 신규 감염인 중 역학조사가 끝난 155명 모두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이성간 성접촉으로는 81명, 동성간 성접촉으로는 74명이 감염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78명(92%), 여자가 24명(8%)으로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과 달리 국내는 여전히 남성 감염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게 대한 에이즈예방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활동이 왕성한 2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60대 이상 노년층과 10대 청소년 감염은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30대가 94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80명(26.5%), 20대가 70명(23.2%), 50대가 36명(11.9%), 60대 이상이 18명

(6.0%), 10대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국인 신규감염인 모두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에이즈예방책인 콘돔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TV, 지하철, 버스의 전광판, 옥외광고를 통하여 콘돔 사용촉진과 에이즈 검사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특수업태부 밀집지역과 게이바 등에 콘돔을 배포하고, 콘돔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감염현황을 발표하였다. 외국인 신규감염인은 82명으로 작년의 59명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지만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6월까지 4년 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조치로 6만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에이즈감염인 확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내국인 연도별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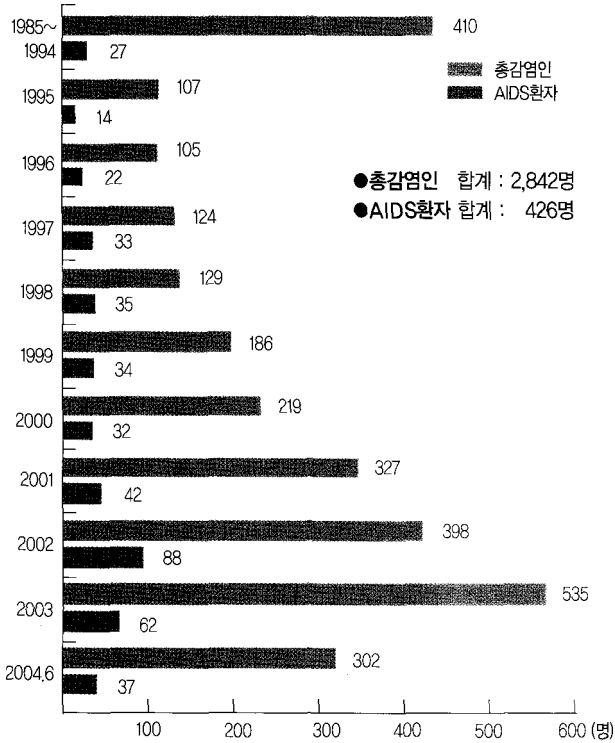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85~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환자사망	395	23	14	25	30	37	34	32	42	58	63	37

●환자사망 에이즈(AIDS)에 의한 사망 ●기타사망 에이즈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출처 : 질병관리본부)

» 내국인 감염인/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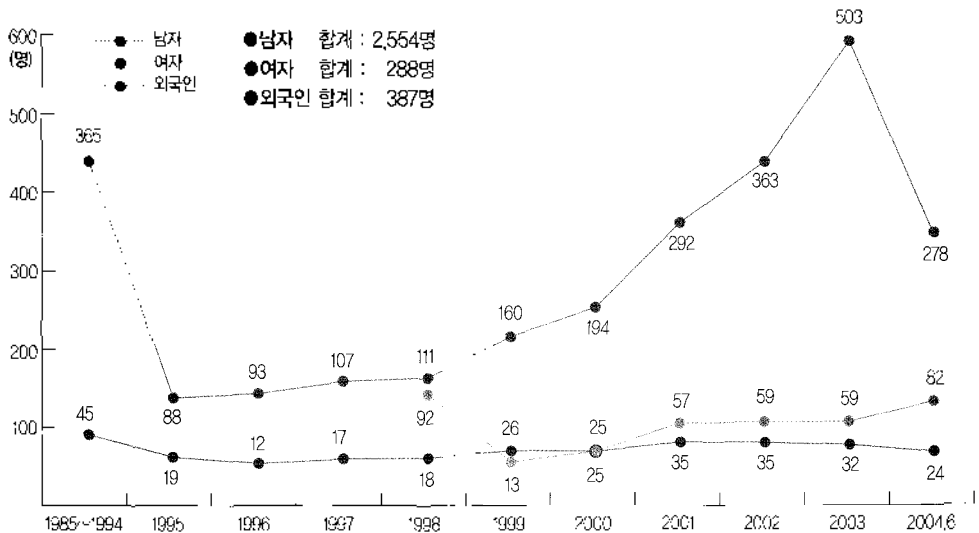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신규 감염인 현황

(단위: 명)

연령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	백분율 (%)	감염인수	백분율 (%)	감염인수	백분율 (%)
계	302	100.0	278	100.0	24	100.0
0~14	0	0.0	0	0.0	0	0.0
15~19	4	1.3	2	0.7	2	8.3
20~24	24	8.0	22	7.9	2	8.3
25~29	46	15.2	43	15.5	3	12.5
30~34	45	14.9	42	15.1	3	12.5
35~39	49	16.2	48	17.3	1	4.2
40~44	45	14.9	42	15.1	3	12.5
45~49	35	11.6	33	11.9	2	8.3
50~54	16	5.3	14	5.0	2	8.3
55~59	20	6.6	17	6.1	3	12.5
60~64	8	2.7	7	2.5	1	4.2
65세 이상	10	3.3	8	2.9	2	8.3

» 성별 외국인별 발생 현황



● 1998년도 외국인 감염 현황은 1985~1998년까지의 누적 수치임.